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포덕 160(2019)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

 천도교중앙총부




제 100주년

3·1절 기념식



포덕 160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독립선언서	12
천덕송_제17장 공락가	18
삼일절 노래	19

기념식 식순

- 개 식
- 국민의례
- 청수봉전
- 심 고
- 주문3회병송
- 독립선언서 낭독
- 천덕송 합창_ 제17장 공락가 / 1절-4절
- 기념사
- 3·1절 노래 합창
- 만세삼창
- 심 고
- 폐 식

[3·1절 기념행사 안내]

11:40-12:00 / 중앙대교당 / 어린이합창단, 라보엠 축하공연

12:00-12:30 / 중앙대교당 → 탑골공원 / 거리행진 및 의암성사 동상 참례

13:30-15:30 / 중앙대교당 / 3·1절 기념대회

3월 1일 - 7일(10:00-17:00) / 중앙대교당 앞마당, 봉황각 / 사진, 자료전시회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운동 제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그 정신을 이어 역사를 바로세우고, 그 꿈을 살려서 다시 100년을 향한 3·1운동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100년 전 오늘, 의암성사와 민족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류세계의 평등평화를 선언하고 만세를 선창하였습니다. 그 선언과 만세 소리가 한반도를 채우고 온 세계를 깨웠습니다. 이로써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무장항쟁과 문화투쟁을

더하여 조국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분단의 질곡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듭하여 세계사에 우뚝한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혁명, 갑진개화혁신운동, 인재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구국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49일기도로 이신환성의 정신을 함양하며, 성심성력으로 3.1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심고자 하는 뜻은 독립선언서로 표현되고,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삼대원칙은 공약삼장으로 표현되어 인류를 깨우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보국안민, 포덕광제의 길에서 순도하신 수백만 동학천도교 선열들과, 독립과 통일운동의 장정에서 순국하신 수많은 민족지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출세하는 오늘입니다. 불순천리하고 불고천명하는 각자위심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다시개벽의 깃발 아래 동귀일체 하고자 하는 오늘입니다. 시호시호 노래하며 내일로 가는 오늘

입니다.

존경하는 천도교인 여러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마음 한 뜻이 됩시다. 기도와 수도로 경천하고, 경물과 경인으로 힘을 길러서 다시개벽의 선구자가 됩시다.

3·1운동은 기미년에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어온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운동의 현현입니다. 보은에서 꽃핀 민회운동이 첫째 봉우리입니다. 갑오년에 햇불을 올린 동학농민혁명이 둘째 봉우리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첫 혁명, 자주의 시작이며, 다시개벽운동의 빛나는 성공,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갑진개화혁신과 교육입국운동이 셋째 봉우리입니다. 교정쌍전의 두 바퀴로 자주근대의 신국가를 기약하였습니다. 각급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신문물 언론힘출판으로 계몽개화의 빛을 밝혔습니다. 의병과 개화

파, 위정척사마저 꺼안고, 독립입국의 한길로 내달렸습니다. 민족자존과 인류평등의 길을 밝힌 일입니다.

이 혁명과 운동이 흐르고 모여 3·1운동의 큰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때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세계 개조의 운수를 살피고 읽은 뒤에, 사람과 단체의 마음과 기운을 하나로 모아 마침내 거사하였습니다. 한울님의 감응으로 천하가 함께하여 세계 민족운동, 평화운동, 신문명 운동사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왜곡되고 빼앗긴 천도교 3·1운동의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정의롭고 담대하던 천도교의 기상을 되살려야 합니다.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려 우리 시대의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보국안민-후천개벽을 기필코 이루기 위하여 물오동포-인오동포의 생명세계를 향한 제2의 3·1운동을 기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울님 스승님, 선열의 감응으로 다시

내일을 향한 장정을 선창하는 것은 지난 100년간 도산
검수 고난의 길이 모질고 거칠었지만 분단과 신 서세동
점의 현대사에서 성운이 꽃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
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3·1정신이 헌법전문과 민
족운동사에 맥맥이 살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경하는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3·1운동 그날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조국
을 맞이합시다. 그날의 쉼기는 자유자주, 상부상조 정
신의 개화입니다. 우리 역사의 오랜 시련은 평화와 행
복이 넘치는 자주통일의 밑거름입니다. 전 세계 온 인
류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경축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우리 민족의 번영을 찬탄합니다.

온 세상의 동덕, 동포 여러분!

오늘 선열들의 거룩한 정신과 오롯한 헌신을 기억합
시다. 3·1운동의 빛을 따라 개벽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정의, 행복과 평화의 세상을 건설합시다.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책려하고, 잘못을 배
타하기보다 자기 건설에 정성들이는 마음은 3·1운
동의 정신입니다. 몸과 기운을 바르게 하여 봄을 기
다리고 우리의 안녕과 동아시아와 세계의 공존, 인류
와 온 생명공동체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지혜와 용기
를 다합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우르는 기운은 3·1운동의 기
운입니다. 남녀노소가 서로 모시고 살리며 어울려 사는
대동의 기운입니다. 나와 네가 우리로 거듭나서, 하늘
이 덮어주는 은혜와 땅이 실어주는 은덕에 보답하는 기
운입니다.

현속하신 천도교인 여러분!

3·1운동 제100주년의 새봄입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춘삼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볼까! 하신 그 봄입니
다. 해월신사께서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니 온몸이
화하고, 봄이 돌아오고 꽃이 피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

나 하신 그 봄입니다. 의암성사께서 저 나무의 세 가지 꽃이여 봄이 낳은 덕이요, 사람이 만든 공이로구나 하신 그 봄입니다. 마음을 화하게 하고 기운을 화하게 하여 새봄을 맞이합시다.

다시 3·1운동 100주년을 향한 출발의 새봄입니다. 신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던 그 봄, 위력의 시대를 보내고 도의의 시대를 맞이하던 그 봄, 인도적 정신이 신문명 새 역사의 길을 비추던 그 봄입니다. 만세 함성으로 불러일으킨 새봄이 이 세상 만물의 부활을 재촉하던,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그 봄입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모신 한울님이 우리에게 감응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팔천만 동포가 우리와 함께하고 팔십억 인류가 우리를 뒤따릅니다. 천지의 기운이 우리를 격려하며 억천만 조령이 우리를 음우하여, 만물이 다시 새롭게 화생하고 만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함께합시다!

3·1운동의 그날처럼 너나없이 하나 되어, 동귀일체의 개혁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새 봄을 노래하는 풍류, 새 문명을 예감하는 예지, 새 세계를 지향하는 기상이 어우러진 오늘입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0(2019)년 3월 1일

천도교 교령 이 정 희 삼고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우리나라)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

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

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

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인도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꿈꿨던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

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어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고귀하고 세상에 빛남)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

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 널 리 퍼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은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천 고 틀 올 리는 곳 에 궁 울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언덕 에 온 갓 새 부르짖 네

후렴

들 도 보 도 못 -한 이 -풍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삼일절 노래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상 천 만 이 하 나 요

이 날 은 우리 의 의요 생 명 이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어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